

블루콤 - 033560

Courtesy: 유화증권

4Q operation result contraction relative to the previous year related to the popularity of the iPhone 4S popularity. The popularity stemmed from Jobs' passing and in the 3 month period, sold over 30 MM units. Co. supplied the linear vibrating motor to Apple, and the revenue generated 50% of revenue for the co, resulting in stellar 4Q 2011 results.

Even with the weaker performance in Q4, revenue stood at 56B KRW (40% YoY) and EBIT at 6.3B KRW (110% YoY).

The co.'s sales plummeted when Samsung Electronics dropped the co. as a supplier, but stabilized by securing the linear vibrating motor for Apple. The co. signed a new, large supply agreement for 2013.

2013 revenue forecasted at 78B KRW (38% YoY) and EBIT 10.5B KRW (66% YoY). Although the sales will be depressed from lower than forecasted sales of the iPhone 5 line, the new client sales should offset the weakness. As LG Electronics ODM Bluetooth supplier, sales in Europe and N. America are forecasted to grow. Also, the micro speaker which was in the Test development stage for Apple, may be available for sale. OLED TV speaker sales may be realized in the 1st half of 2013.

4분기 영업실적 감소는 지난 2011년 4분기 아이폰4S 흥행으로 인한 기고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10월에 출시된 아이폰4S는 잡스의 유작으로 조명 받으며, 2011년말까지 3개월간 3,000만대 이상의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다. 동사는 아이폰4S에 리니어 진동모터를 공급하는 업체로, 해당 모델 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 4분기 우호적인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동사의 2012년 전체 영업실적은 4분기 실적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64억원(+40.4%, YoY), 63억원(+110.0%, YoY)으로 우호적인 기록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사는 2011년 삼성전자향 제품 공급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2011년말 부터 애플향 리니어 진동모터 매출을 시작으로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매출 안정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2012년의 실적 개선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며, 2013년에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신규 매출처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성장성 확대가 예상된다

동사의 IFRS 개별 기준 2013년 예상 영업실적은 매출액 780억원(+38.4%, YoY), 영업이익 105억원(+66.7%, YoY)으로 추정된다. 긍정적인 영업실적 달성이 전망되는 이유는 1)애플향으로 공급되던 리니어 진동모터의 경우 아이폰5에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신규 매출처 확보를 통해 만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2)LG전자에

ODM으로 공급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경우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3)그 동안 TEST 진행 중에 있었던 애플향 마이크로 스피커 공급이 연초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4)OLED TV용 초박막형 스피커 공급도 상반기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